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 2025년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목 차

Ⅰ. 연수개요 ····· 1

Ⅱ. 연수일정 ····· 2

Ⅲ. 스페인 현황 ····· 3

Ⅳ.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 12

1-1. 가우디 유적(까사 바뜨요, 까사 밀라, 구엘 공원) ····· 12

1-2.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 16

1-3. 몬세라트 수도원 ····· 18

1-4. 톨레도 대성당 ····· 21

2-1. 카탈루냐 주의회 ····· 24

2-2. 바르셀로나 시의회 ····· 28

2-3. 마드리드 시의회 ····· 32

3-1.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 36

3-2.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 38

4.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 ····· 40

Ⅴ. 마무리 ····· 46

Ⅰ 연수개요

○ 연수국가 : 스페인

○ 연수기간 : 2025. 9. 24.(수) ~ 10. 2.(목) / 7박 9일

○ 연수목적

1. 스페인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및 종교문화유산 관리·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행정 정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지방 및 광역의회의 제도와 운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효율적 의정운영 모델을 연구하고자 함
3. 한글학교와 한국문화원 등 K-컬처 확산 기관을 방문하여 글로벌 문화교류 및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4.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 참여를 통해 시민참여형 축제운영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의 혁신적 접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수자 명단

연번	부 서	직 급	성 명	비고
	합 계		11명	남9, 여2
1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4급	박 동 우	단장
2	총무담당관	행정6급	이 관 우	
3	총무담당관	행정6급	황 지 웅	
4	총무담당관	행정7급	박 진 희	
5	총무담당관	운전7급	이 호 영	
6	의사담당관	속기8급	노 준 호	
7	입법정책담당관	행정6급	김 성 미	
8	의정홍보담당관	행정7급	함 훈 욱	
9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7급	윤 호 진	
10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시설6급	강 정 한	
11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행정6급	진 용 근	

Ⅱ 연수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비고
1일차 (9.24)	전 주	04:00	· 전주 출발	
	인 천	11:05	· 인천국제공항 출발	
	스페인 (바르셀로나)	19:00	·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도착	
2일차 (9.25)	바르셀로나	10:00	· **가우디 유적 방문** - 문화유적 활용방안 체험	
3일차 (9.26)	몬세라트	08:00	· **몬세라트 수도원 등 방문** -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바르셀로나	17:45	· **카탈루냐 주의회 등 방문** - 지방(광역)의회 역사 및 기능 연구	
4일차 (9.27)	바르셀로나	11:00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및 한인회 방문** - 한국문화 확산 활용방안	
5일차 (9.28)	바르셀로나	11:00	· **바르셀로나 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 역사 및 역할 연구	
		18:00	· **라 마르세 축제** - 지역 대표 축제 체험	
6일차 (9.29)	바르셀로나	10:00	· 마드리드 이동	
	마드리드	15:00	· **마드리드 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 역사 및 역할 연구	
7일차 (9.30)	톨레도	08:00	· **톨레도 대성당 등 방문** - 종교문화유산 활용방안	
	마드리드	15:30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방문** - K-문화 및 전북문화 연계 방안	
8일차 (10.1)	마드리드	11:00	· 바르셀로나 이동	
	스페인 (바르셀로나)	21:00	· 바르셀로나 국제공항 출발	
9일차 (10.2)	인 천	16:4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전 주	21:00	· 전주 도착	

Ⅲ 스페인 현황





□ 일반현황

○ 언　어 : 스페인어・카탈루냐어 등
○ 면　적 : 506,030㎢(세계 50위)
○ 수　도 : 마드리드
○ 인　구 : 약 4,932만명(2025.7월기준)
○ G D P : 1조 5860억$(2021, IMF)
○ 기　후 : 전반적으로 온대기후이나, 대부분 지역 지중해성 기후
○ 종　교 : 가톨릭 68.9%, 무종교 16.2%, 기독교 및 기타종교 14.9%

□ 역사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로마・이슬람・기독교 문명이 순차적으로 교차하며 형성된 복합문명국임. 로마제국 시기에는 법률・건축・언어체계가 도입되었고,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진입하면서 건축과 학문, 과학이 급속히 발전했음. 이러한 이슬람문화는 코르도바와 그라나다 등지에서 꽃을 피워, 오늘날에도 스페인 남부의 건축양식과 생활문화 속에 깊이 남아 있음.

1492년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이 통합되며 통일 왕국이 성립하였고, 같은 해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에 나섬으로써 스페인은 세계 제국으로 부상했음. 신대륙 식민지에서 유입된 금과 은, 향신료는 유럽 경제의 중심을 스페인으로 이동시켰으며, 16세기 황금기는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이루었음. 그러나 과도한 군사비와 종교재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제국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17세기 이후 스페인은 유럽 내 주도권을 상실했음.

19세기에는 나폴레옹 침공과 내전, 그리고 식민지 상실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20세기에는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가 후퇴했음. 1975년 프랑코 사망 후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즉위와 함께 입헌군주제가 복원되었고, 1978년 헌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음. 현재의 스페인은 독재와 분열의 시대를 넘어선 안정된 민주국가로,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서 정치적 신뢰와 문화적 영향력을 함께 확대하고 있음.

□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스페인은 유럽 남서단의 이베리아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교량적 위치를 가짐. 북쪽에는 피레네산맥이 프랑스와의 경계를 이루고, 남쪽에는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모로코와 마주함. 국토의 절반 이상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세타 고원을 중심으로 산맥과 강이 복잡한 입체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지역별로 뚜렷한 기후와 생활양식을 만들어냄.

북부는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습윤하고 온화하며, 목축업과 낙농업이 발달했음. 반면 내륙의 고원지대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건조한 기후 속에서도 곡물과 포도재배가 이루어짐.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고 건조하여, 올리브・오렌지・포도 등 특산물의 주산지로 발전했음. 이러한 기후적 다양성은 스페인 각 지방의 독립적 정체성과 자치적 행정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

자연자원은 풍부하지 않으나, 스페인은 자연을 관광・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데, 피레네산맥의 스키리조트, 코스타델솔 해안의 리조트, 산티아고 순례길 등은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관광자원이 되었음.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전력의 5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음. 도시 곳곳에서는 자전거도로, 전기버스, 친환경 건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주도의 환경정책이 국가적 녹색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스페인 국민과 언어

스페인은 약 4,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다민족・다언어 국가로,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개의 스페인’이 존재한다고 불릴 만큼 지역별 개성이 뚜렷함.

헌법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지만, 카탈루냐・바스크・갈리시아 등 자치주에서는 각각의 언어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음. 각 지방정부는 교육・방송・행정에서 자국어 사용을 보장하며, 이는 지역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음.

스페인 국민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세속적 경향이 강함.

또한 가족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연대와 협동을 중시하며, ‘피에스타(축제)’와 ‘시에스타(낮잠)’ 문화는 삶과 일의 균형을 상징함. 이러한 국민성은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며,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으로 이어졌음.

최근 스페인은 이민자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남미, 동유럽,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청년세대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세대 간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지만, 스페인은 이를 갈등이 아닌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관리하고 있음.

□ 경제

스페인의 경제는 유럽연합(EU) 내 5위 규모로, 산업화와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음. 1950~70년대 ‘스페인 경제의 기적’ 이후 관광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1986년 EU 가입 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 교통망과 산업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잇는 고속철도(AVE), 발렌시아・세비야의 항만, 전국 고속도로망은 유럽 내에서도 우수한 수준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성장이 일시 둔화되었으나, 2024년 기준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를 회복했음. 관광산업은 GDP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8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3대 관광대국으로 자리함.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산업이 핵심으로, 독일・프랑스・일본 기업의 현지 생산거점이 운영 중임. 농업 분야에서는 유럽 최대의 올리브유 생산국으로, 와인과 감귤류 수출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임.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2050 전략’을 통해 녹색전환과 디지털화를 경제 정책의 양대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개발, 스타트업 육성, 청년고용 확대 정책이 병행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어섰음.

또한 지방정부의 산업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주별 산업특화 전략이 시행 중임. 카탈루냐는 디자인·창의산업, 바스크는 첨단제조, 안달루시아는 농업·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음.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 남유럽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치

스페인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민주국가로, 국가원수는 국왕이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내각과 의회가 행사함. 1978년 제정된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후 스페인은 안정된 정치제도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유럽 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했음.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어 입법과 내각신임권을 가지며, 상원은 자치주를 대표하여 지역의 이해를 반영함.

행정부는 총리가 이끄는 내각 중심 체제로 운영되며, 총리는 하원의 신임을 통해 선출됨.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정치체계로 기능하고 있음.

정당정치는 전통적으로 사회노동당(PSOE)과 국민당(PP)의 양당 구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포데모스, 복스(Vox), 시우다다노스 등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며 다당제적 협치 구조가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은 타협과 연정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정치과정에서의 합의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

스페인의 정치문화는 내전과 독재를 경험한 역사 속에서 ‘대화와 조정’을 중시하는 합리적 민주주의로 발전했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각 자치주는 자체 의회와 행정부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함. 특히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은 세금, 교육, 문화정책에 있어 높은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음.

스페인의 지방정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시민정책 포럼 등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안정된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교육과 복지

스페인의 교육제도는 중앙정부가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정부가 구체적 운영을 담당하는 분권형 구조임. 의무교육은 6세부터 16세까지로, 초등 6년과 중등 4년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고등교육은 공립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럽학점제(ECTS) 도입으로 유럽 내 대학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정책의 핵심은 '평등한 기회와 포용적 학습환경'으로, 장애학생과 이민자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언어지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으며,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교재와 급식을 제공받는 제도를 시행 중임. 교사 양성 과정 또한 엄격하게 운영되어,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유지함.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디지털 학습환경이 빠르게 정착했음.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서비스(SNS)는 전국민 무상의료를 제공하며,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방정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수당과 가족복지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여성의 고용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음.

스페인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소득보조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과 고용 촉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고,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체계적 복지 행정은 지방자치와 사회적 연대의 기반 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문화예술

스페인의 문화예술은 유럽과 이슬람, 라틴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님. 예술이 국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으며, 도시와 건축, 음식, 음악, 축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적 감수성이 발현되고 있음.

스페인은 예술을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며,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자리하고 있음.

건축은 스페인 문화의 핵심적 상징으로, 안토니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자연과 신앙, 인간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건축물로,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 명소임. 까사밀라와 까사바뜨요, 구엘공원 등은 유기적 곡선과 빛의 활용을 통해 자연주의적 미학을 극대화했으며, 이러한 유산은 현대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활용되고 있음.

스페인의 예술은 회화와 조각에서도 두드러짐. 벨라스케스, 고야, 피카소, 달리, 미로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의 작품은 인간의 내면과 시대정신을 반영함. 마드리드의 프라도미술관, 소피아왕비미술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미술관 등은 예술의 대중화와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음.

음악과 무용에서는 플라멩코가 대표적임.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삶에서 비롯된 예술로, 정열적인 리듬과 즉흥적 표현으로 인간의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냄. 이러한 예술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축제와 관광의 핵심 요소로 발전했음.

음식문화 또한 스페인의 생활예술을 상징하는데, 타파스, 파에야, 하몽, 와인 등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회적 교류의 매개로 기능하며, 스페인의 식문화는 지역의 기후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여 세계 미식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최근에는 전통요리와 현대미학을 결합한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다수 등장하여 스페인 음식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음.

축제문화는 예술과 공동체의 결합을 보여줌. 바르셀로나의 라 마르세 축제, 발렌시아의 파야스 축제, 팜플로나의 산페르민 축제 등은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했음.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시민 자부심과 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1950년 수교 이후 70여 년간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2020년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켰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협력거점으로 상호 인식을 강화했음. 이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며, 양국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포괄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정치적으로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평화적 국제질서를 핵심 가치로 공유하고 있음. 스페인은 유럽연합(EU)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일관되게 지원해왔음.

2024년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기후변화・디지털 전환・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협력의 범위를 전통안보에서 미래세대 중심의 의제로 확대했음.

경제적으로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약 7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은 자동차・반도체・배터리소재 등을 수출하고, 스페인은 제약・기계・식품・와인 등을 공급함. 특히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스페인의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음.

문화・인적교류는 양국 관계의 가장 활발한 분야로 발전했음. 2011년 개원한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은 한식・한복・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현지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한글학교를 비롯한 각 지역의 한글교육기관은 교민 자녀뿐 아니라 현지 청소년에게도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있음. 반대로 스페인의 예술・건축・축제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양국 간 예술 교류 전시회와 공연이 정례화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간 학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스페인 주요 대학들은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교환학생 교류도 활발히 진행 중임. 한국 대학생들의 스페인 유학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양국 간 청년세대의 문화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양국은 공통적으로 청년실업・저출산・지역격차 등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한국의 지역상생정책에 참고되고, 한국의 디지털 행정혁신은 스페인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벤치마킹되고 있음. 양국은 기술과 사람, 문화가 결합된 ‘포용적 성장모델’을 함께 구축하고 있음.

결국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국을 넘어,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포괄적 동반자로, 스페인은 한국에 복지와 문화, 자치의 깊이를 보여주는 유럽의 모델이며, 한국은 스페인에 기술혁신과 디지털 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아시아의 파트너임. 양국은 예술로 공감하고, 기술로 협력하며, 정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속의 모범적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Ⅳ 주요 연수내용 및 시사점

1-1 가우디 유적(까사 바뜨요, 까사 밀라, 구엘 공원)

○ 방문일정 : '25. 9. 25.(목) 10:00
○ 주　　소
- Casa Batlló : Passeig de Gràcia, 43, 08007 Barcelona Spain
- Casa Milà : Passeig de Gràcia, 92, 08008 Barcelona Spain
- Park Güell : Carrer d'Olot 5, 08024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Casa Batlló : https://www.casabatllo.es/
- Casa Milà : https://www.lapedrera.com/
- Park Güell : https://parkguell.barcelona/

□ 방문지 소개

○ **까사 바뜨요(Casa Batlló)** : 바르셀로나의 번화가인 그라시아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불화의 블록(Manzana de la Discordia)'이라 불리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모더니즘 건축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안토니 가우디의 핵심 작품이라 할 수 있음.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진행된 개축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기존 건물의 틀을 완전히 혁신하여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이고 독특한 형태를 부여한 건축물임.

○ 이 건물은 '뼈의 집' 또는 '용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는 외벽을 지지하는 뼈대 모양의 기둥과 해골 모양의 난간을 갖춘 발코니 형태 때문으로, 지붕은 용의 등가죽을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색상의 도자기 조각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카탈루냐의 수호성인인 성 게오르지의 용 퇴치 전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됨.

○ 건물 내부 또한 예외 없이 곡선과 자연광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중앙의 채광정은 타일의 색상을 위에서 아래로 점진적으로 밝게 처리하여 빛의 분산을 최적화하려는 가우디의 섬세한 빛에 대한 이해가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현재는 사립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첨단 디지털 미디어와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관람 방식을 통해 극대화된 관광 상품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민간 소유의 문화유산을 극대화된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으로 전환한 사례임. 도내 근대 건축물이나 사립 미술관 등에 디지털 미디어 아트,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관람료를 책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까사 밀라(Casa Milà) : 가우디가 민간에 건설한 마지막 대형 건축물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현지에서는 그 거친 외관 때문에 '채석장'이라는 의미의 라 페드레라(La Pedrera)라는 이름으로도 불림. 1906년부터 1912년 사이에 건축된 이 건물은 파도치는 듯한 유동적인 석조 외벽을 갖추었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자립형 석재 외벽과 하중을 지탱하는 벽이 없는 내부 구조를 채택하였음. 이는 실내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선구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축의 혁신은 옥상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이곳에는 기괴한 모양의 환기구와 굴뚝들이 마치 중세 기사인 듯 초현실적인 조각상처럼 서 있고, 이 옥상 조형물들은 단순한 기능적 요소를 넘어선 예술적 조형물로 기능하며, 바르셀로나의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 현재 까사 밀라는 문화재로 보존됨과 동시에 문화 센터, 전시 공간, 그리고 일부는 임대 사무실로 복합 활용되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과 경제적 수익성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선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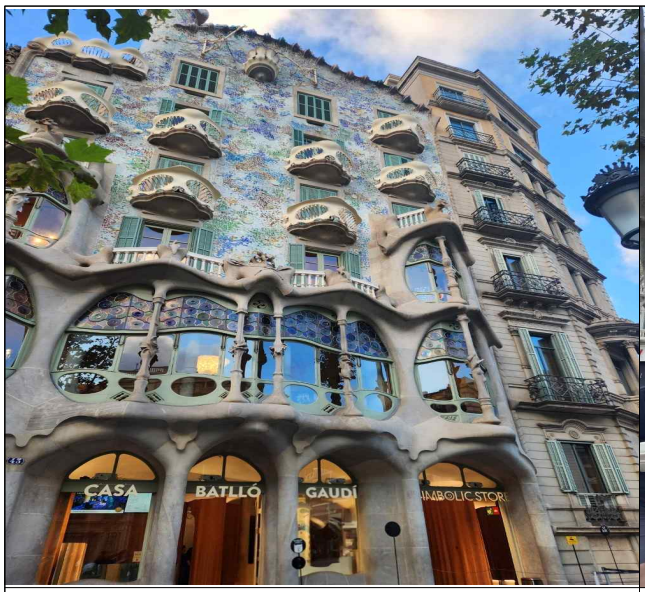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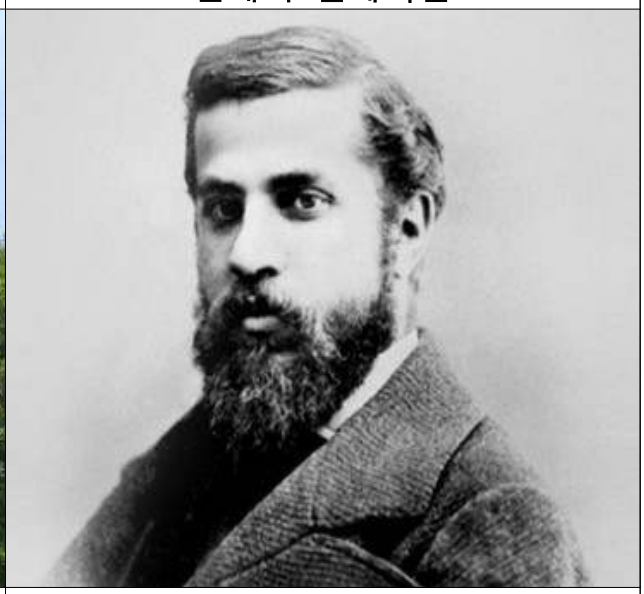
◘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시설(전시, 공연), 교육 공간, 상업 공간 등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였음. 도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휴 건물에 대해 건물 본래의 용도를 넘어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임대 수익을 문화유산 보존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자립적 운영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엘 공원(Park Güell) : 사업가 에우세비 구엘의 의뢰로 1900년부터 1914년까지 조성된 공원. 원래는 영국식 전원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부유층을 위한 60채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로 기획되었으나, 상업적인 분양 실패로 인해 1922년에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매각되어 공공 공원으로 전환되었음.

○ 이 공원은 가우디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연과의 조화와 유기적인 건축 미학을 보여줌. 공원의 입구에는 동화 속 과자 집을 연상시키는 관리동과 수위실이 있으며,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리스 신전 양식을 연상시키는 '기둥의 방'이 나타남. 86개의 도리아식 기둥은 원래 시장 공간으로 구상되었으며, 그 위에는 물결 모양의 긴 벤치가 특징인 주 광장이 자리하고 있음. 이 벤치와 공원 곳곳의 조형물은 깨진 타일 조각을 재활용한 트렌카디스 기법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 건축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 자산으로 관리되는 현재, 공원 전체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유지하되, 핵심 유적지 구역을 유료 관람 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민간에서 활용에 실패한 공간을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문화 자산으로 성공적으로 재탄생시킨 사례.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관람 구역을 분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은 도내 대규모 유적지나 자연경관을 활용할 때 효율적인 재원 확보와 관리를 목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 특히, 폐자재를 활용한 트렌카디스 기법은 친환경적 디자인 및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북만의 독창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음.

□ 방문 사진

<table>
<tr><td>
</td><td></td></tr>
<tr><td>까사 바뜨요</td><td>관계자 단체사진</td></tr>
<tr><td></td><td></td></tr>
<tr><td>까사 밀라</td><td>안토니아 가우디</td></tr>
<tr><td></td><td></td></tr>
<tr><td>구엘 공원</td><td>관계자 단체사진</td></tr>
</table>

1-2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 방문일정 : ‘25. 9. 25.(금) 15:00
○ 주　　소 : Carrer de Mallorca, 401, 08013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s://sagradafamilia.org/

□ 방문지 소개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미완성 역작이자, 1882년 건축을 시작한 이래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음. 가우디는 1883년 공사를 인계받은 후 그의 마지막 생애를 이 성당 건축에 전념하였음.

○ 성당의 설계는 자연과 기하학적 형태의 결합이라는 가우디의 건축 철학을 집대성하고 있음. 내부의 기둥들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형상화하여 마치 거대한 석조 숲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며, 천장은 쌍곡면과 포물면 등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하중을 분산시키고 자연광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이 혁신적인 건축 기법 덕분에 성당 내부는 화려한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으로 가득 차,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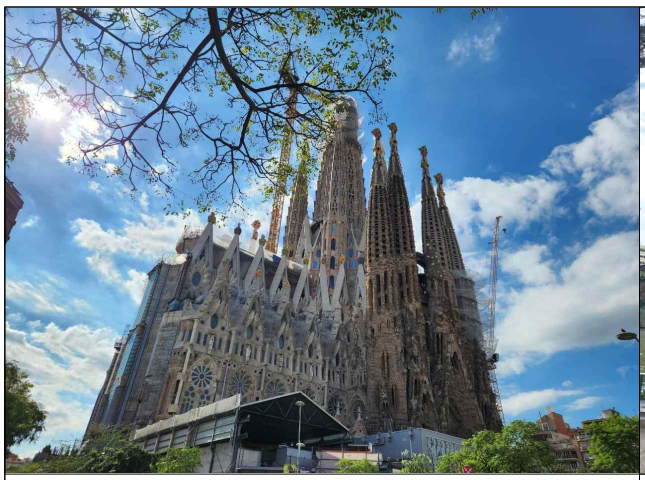
○ 성당 외관은 예수의 생애를 담은 세 개의 주요 파사드, 즉 탄생 파사드, 수난 파사드,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영광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파사드는 성경의 이야기를 정교하고 상징적인 조각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완공 시 18개의 첨탑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설계되어 있고, 가장 높은 중앙 첨탑은 예수에게 헌정되도록 현재 건설 중임.

○ 성당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직 성당의 관람 수입과 전 세계 신자들의 기부금만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처럼 '미완성' 그 자체가 강력한 관광 콘텐츠로 기능하여, 관람객이 건축 과정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사례는 문화유산 관리 및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수익 구조의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급진적인 모델임. 이러한 자립형 재정 모델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관람객이 지불하는 요금과 기부금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건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함으로써 공공 재정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임.

◘ 전북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나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계획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자체의 글로벌 상징성과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관람료 책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이처럼 미완의 상태에서도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문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방문 사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전경



관계자 단체사진

1-3 몬세라트 수도원

○ 방문일정 : ‘25. 9. 28.(금) 10:00
○ 주　　소 : Montserrat, 08199 Montserrat,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s://abadiamontserrat.cat/

□ 방문지 소개

○ 몬세라트 수도원은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톱니 모양의 기이하고 장엄한 암벽 산(Montserrat) 정상 부근에 세워진 베네딕트 수도회의 영적 중심지임. 이곳은 자연의 웅장함과 종교적 성스러움이 완벽하게 결합된 장소로 손꼽히고 있음.

○ 수도원의 역사는 9세기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설에 따르면 880년경에 이 험준한 산속 동굴에서 ’검은 성모마리아상’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짐. 이 성모상은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라 모레네타(La Moreneta, 검은 소녀)’라고도 불리며, 12세기에 제작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목조각으로 밝혀졌음.

○ 이 성모상은 1881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카탈루냐의 수호 성인으로 공식 선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으며 카탈루냐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 특히, 스페인 내전(1936~1939)과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에는 카탈루냐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자 상징이 되기도 하였음.

○ 순례자들은 성모상의 오른손에 들린 구형 구체를 만지며 축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음. 이를 보기 위해 매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써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로 오늘날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현재 몬세라트 수도원에는 약 70~80명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거주하며 기도, 노동, 그리고 순례자 영접에 전념하고 있음. 수도사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합창단 중 하나인 에스콜라니아를 운영하며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신학과 철학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정신적·교육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피카소, 달리 등의 작품을 소장한 몬세라트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어 스페인 내에서도 손꼽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음.

○ 한편, 험준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몬세라트 수도원은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여 복합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인근에서부터 산악 열차(크레말레라)나 케이블카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순례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함을 보장하고 있음.

○ 그리고 수도원 주변에는 다양한 난이도의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웅장한 자연경관을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더 높은 봉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푸니쿨라도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수도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지역 농산물 시장을 연계하는 등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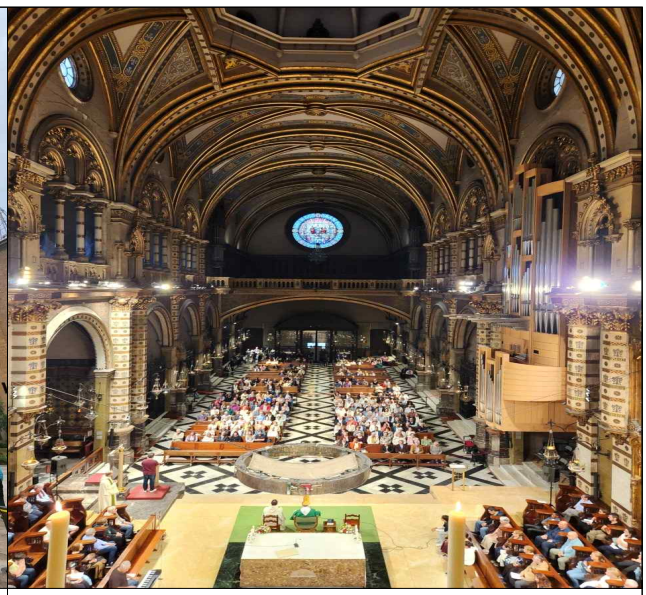
◘ 종교적 성스러움과 자연경관의 성공적인 융합 사례. 몬세라트가 지닌 종교적 상징성과 주변의 장엄한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것은 전북도내 전동성당, 모악산 등 종교적 · 자연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의 순례 관광

및 생태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특히,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케이블카 등) 구축과 미술관 운영,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문화·경제적 기능의 복합화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우리 도에서도 관심있게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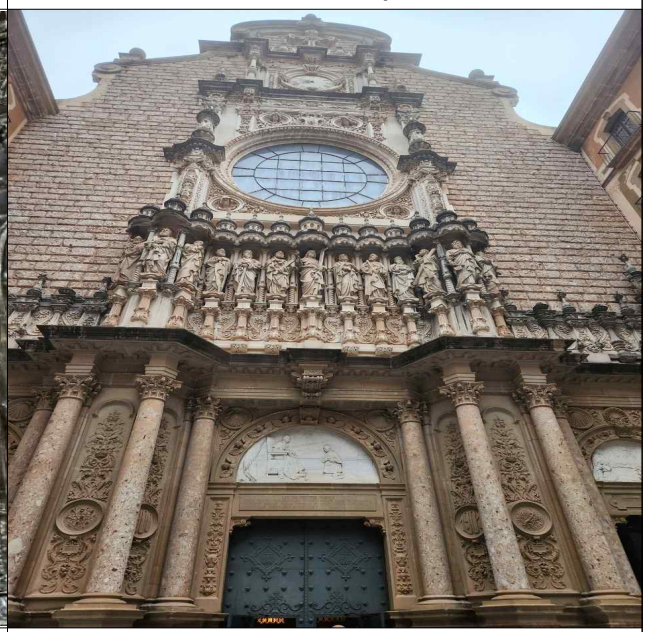
몬세라트 수도원



성당 내부



검은 성모마리아상



수도원 파사드의 12사도상

1-4 톨레도 대성당

○ 방문일정 : ‘25. 9. 30.(화) 16:00
○ 주　　소 : Calle Cardenal Cisneros, 1, 45002 Toledo,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catedralprimada.es/

□ 방문지 소개

○ 톨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가톨릭의 수석 대성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1226년 건축을 시작하여 1493년에 주요 부분이 완공될 때까지 200년 넘게 건축된 스페인 고딕 건축의 기념비적인 걸작임. 톨레도 구시가지 전체가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 대성당이 도시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와 문화적 혼종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성당의 부지는 과거 서고트 왕국의 예배당, 그리고 이슬람 지배 시기의 중앙 모스크가 있던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에 따라 건축물은 단순한 프랑스식 고딕 양식의 틀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 건축 요소가 기독교 양식에 융합된 섬세한 디테일을 지니고 있음. 특히, 아치형 창문, 벽 장식, 그리고 삼층 구조 등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문양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문화가 공존했던 톨레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고 볼 수 있음.

○ 성당 내부는 5개의 웅장한 본당과 22개의 소성당으로 구성되어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함. 중앙의 성가대석은 호두나무와 마호가니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스페인 목공예의 극치를 보여주며, 주제단 뒤편에는 스페인 바로크 건축가 나르시소 토메가 완성한 걸작인 트란스파렌테(El Transparente)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함. 이 조형물은 천장에 혁신적인 채광창을 뚫어 외부의 빛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제단 위 조각상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바로크 시대의 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예술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대성당 내부의 성물실은 단순한 종교적 보관 시설을 넘어선 최고 수준의 미술관 역할을 겸하고 있음. 이곳에는 톨레도에서 활동했던 거장 엘 그레코의 걸작을 비롯하여, 스페인 황금기의 고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티치아노와 벨라스케스 등 유럽 회화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남긴 회화 작품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음. 이처럼 톨레도 대성당은 종교적 의례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스페인 예술사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복합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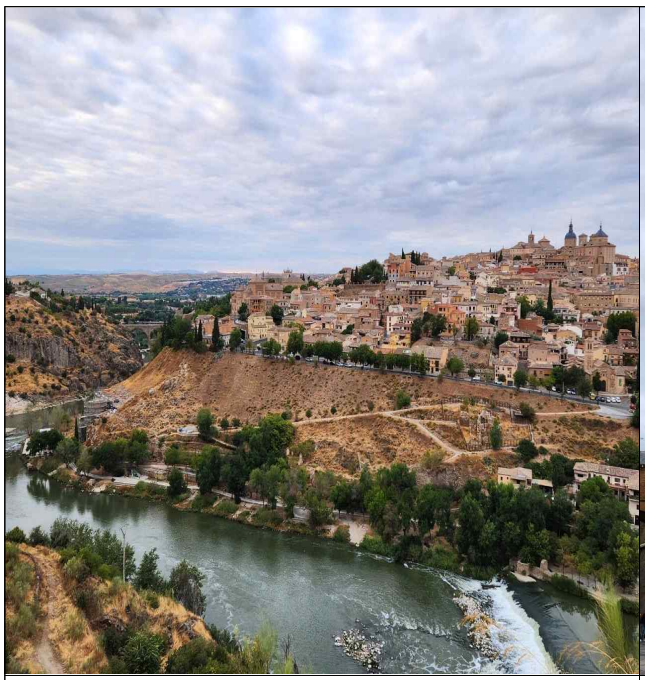
톨레도 대성당 사례는 유서 깊은 종교 유산을 도시 전체의 역사적 맥락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차원적인 문화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킨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음. 단순히 대성당이라는 단일 건축물 보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지닌 '세 가지 문화(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공존이라는 핵심 역사 테마를 관광 루트와 스토리텔링에 알맞게 녹여낸 점은 전북 지역 문화유산 활용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줌.

특히, 전북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자원인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전동성당을 비롯해, 인접한 경기전, 오목대 등의 조선 시대 유적, 그리고 근대 건축물 및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역사·종교 테마 관광벨트' 개발이 필요함. 이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을 확산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문화유산의 복합 기능 활용 및 수익 다각화를 위하여 톨레도 대성당이 성물실을 미술관으로 활용하여 종교적 기능과 예술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듯이, 전북의 주요 종교·문화 유산도 단순 관람을 넘어선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를 모색해야 함.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

전통 공예 체험 교육, 또는 종교 음악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유산이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 문화 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람료 외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 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방문 사진



톨레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대성당



성당 내부



트란스파렌테

2-1 카탈루냐 주의회

○ 방문일정 : ‘25. 9. 26.(금) 17:00
○ 주　　소 : Parc de la Ciutadella, s/n, 08003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catedralprimada.es/

□ 방문지 소개

○ 카탈루냐 주의회는 스페인 동북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스페인의 자치제도 속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강한 지역 정체성을 지닌 의회 중 하나임. 공식 명칭은 Parlament de Catalunya이며, 의사당은 바르셀로나 몬주익(Montjuïc) 언덕의 역사적 건물에 위치하고 있음. 이 의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카탈루냐인의 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정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 카탈루냐 의회의 기원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감. 1359년 아라곤 연합왕국 시절에 설치된 카탈루냐 법정(Corts Catalanes) 이 그 전신으로, 귀족·성직자·도시 대표가 참여하여 지역의 세금과 법률을 논의했음. 이러한 제도는 당시 유럽에서도 드물게 시민 대표가 참여한 형태의 초기 의회 제도로 평가받음. 그러나 1714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이후, 부르봉 왕조의 펠리페 5세가 중앙집권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카탈루냐의 자치권과 의회는 폐지되었음.

이후 프랑코 독재정권(1939~1975) 기간 동안 카탈루냐는 정치적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1975년 민주화 이후 자치권 회복 운동이 본격화되었음. 1979년 제정된 카탈루냐 자치법령에 따라 주의회가 부활하였고, 1980년 4월 첫 선거를 통해 현대적 형태의 카탈루냐 주의회가 공식 출범하였음.

○ 카탈루냐 주의회는 단원제 의회로, 1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본회의(Pleno)이며, 이를 보좌하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장단 등이 있음.

의장(Speaker, President del Parlament)은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정당 구도는 스페인 중앙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과 통합을 선호하는 정당이 공존함.

○ 카탈루냐 주의회의 핵심 역할은 입법, 예산, 행정감시의 세 가지로 요약됨.

첫째, 입법 기능으로서 자치법령(Statutes)을 근거로 한 지역 법률을 제정함. 이는 교육, 문화, 환경, 보건, 지방행정 등 자치정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둘째, 예산 심의·승인 기능을 통해 자치정부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며,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

셋째, 행정 감시 기능으로 카탈루냐 자치정부(Generalitat de Catalunya)의 활동을 견제하며, 정부 구성원에 대한 질의, 조사, 신임·불신임 표결 등을 수행함.

또한, 의회는 자치정부 수반(총리, President de la Generalitat) 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스페인 내 자치주 중에서도 높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됨.

○ 카탈루냐 주의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무대임. 독립 문제, 언어 정책,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권력 관계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정당 간 논쟁이 빈번함. 특히 2017년 카탈루냐 독립선언 사

태는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무효 판결과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 조치로 이어지며 큰 정치적 파장을 낳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치 의식과 민주적 참여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 의회 운영에서는 카탈루냐어와 스페인어가 동등하게 사용되며, 지역 문화와 언어 보호 정책도 활발히 논의됨.

○ 카탈루냐 주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스페인 내 다원적 국가구조 속에서 자치와 정체성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유럽연합이 강조하는 지역 분권과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모델임. 이러한 점에서 카탈루냐 주의회는 스페인의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라 할 수 있음.

◘ 스페인 카탈루냐 주의회는 지방분권이 정착된 유럽형 자치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입법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지역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리 지방의회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권한 강화가 요구됨. 카탈루냐 주의회는 교육·보건·문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직접 심의함. 반면 우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이 있으나 국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한정되어 실질적 정책결정 영향력이 약함.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요구됨. 카탈루냐는 주민청원, 공청회,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운영함.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조례청구제도도 확대 시행 중이지만,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지역 의회가 시민사회와의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가 필요함. 카탈루냐 주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심사 체계를 갖추고, 정책 분석 인력과 전문 보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원의 입법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음. 반면 우리 지방의회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제한적임. 지방의회 사무국의 전문인력 확충과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이 요구됨.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카탈루냐 주의회 연수단 단체사진</td><td>카탈루냐 주의회 직원 설명</td></tr>
<tr><td></td><td></td></tr>
<tr><td>기념품 교환</td><td>의회 내부 연수단 단체사진</td></tr>
</table>

2-2 바르셀로나 시의회

○ 방문일정 : ‘25. 9. 27.(토) 13:00
○ 주　　소 : Pl. de Sant Jaume, 1, Ciutat Vella, 08002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barcelona.cat/

□ 방문지 소개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 수도이자 스페인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지방정부로, 도시의 행정·정치적 중심 기관임. 공식 명칭은 Ajuntament de Barcelona이며, 의사당은 바르셀로나 구시가지(고딕지구)의 산 자우메 광장(Plaça de Sant Jaume)에 위치함. 이곳은 중세부터 시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집회가 열리는 상징적 공간임.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기원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도시의 자치조직이었던 Consell de Cent(100인의 평의회) 가 오늘날 시의회의 전신임. 이는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의 자치가 필요해지면서 구성된 기관으로, 상인과 시민 대표가 함께 도시 행정을 논의하였음.

○ 그러나 1714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 이후 부르봉 왕가의 중앙집권 정책으로 자치권이 폐지되었다가, 19세기 말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시의회가 다시 부활했음. 1979년 스페인 민주화 이후에는 지방자치법(Ley de Bases de Régimen Local)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현대적 지방정부로 재편되었음.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됨. 시장은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시정부의 행정 책임자이자 도시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함. 시의회는 총 4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의회 내부에는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 의정감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정책을 심의함. 또한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개의 구청(Districts)을 운영하며, 각 구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도시행정의 전반을 관장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함.

첫째, 정책 입안 및 예산 승인 기능. 시의회는 도시개발, 주택, 교통, 환경, 문화정책 등을 결정하고, 매년 시 예산을 심의·확정함.

둘째, 행정감시 및 평가 기능.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역할을 수행함.

셋째, 주민참여 촉진 기능. 바르셀로나는 '시민참여의 도시'로 불릴 만큼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으로, 주민투표, 공청회, 온라인 시민의회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운영함. 예를 들어, 시민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는 참여예산제(Presupostos Participatius)가 대표적임.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도시 정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

특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도시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스마트시티'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후 시의회는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자전거 도로 확대, 전기버스 도입), 에너지 절감형 건축,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등 혁신적인 행정 모델을 추진해왔음.

○ 또한,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 예술인 지원, 역사적 건축물 보존, 지역축제(예: 라 메르세 축제) 지원 등 문화 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주거 불평등, 이민자 통합,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주민참여와 분권, 혁신행정이 조화를 이룬 지방자치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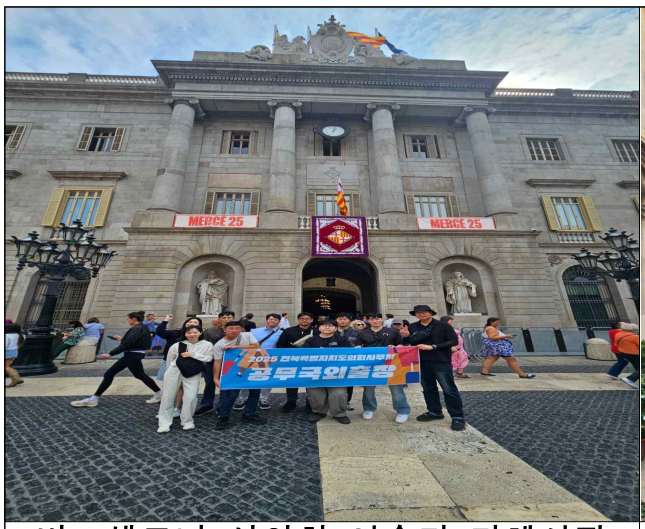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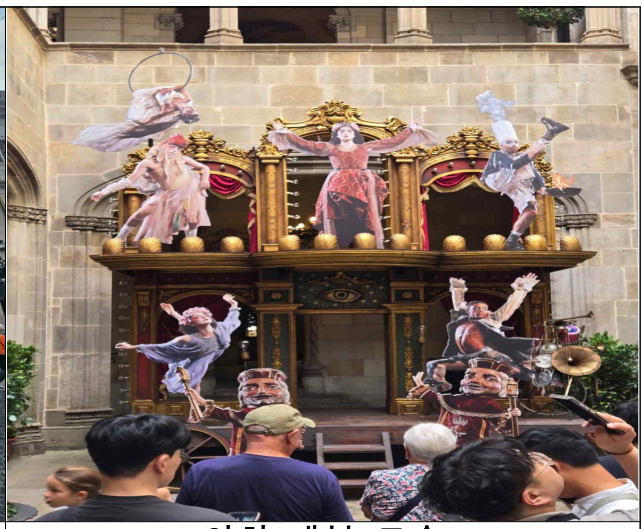
주민참여의 제도적 내실화.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시민공청회, 온라인 시민의회(Decidim Barcelona) 등을 운영함. 이러한 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형식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주민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참여 확대가 필요함.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의정활동의 연계성 강화.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현안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 지방의회가 지역의 장기비전을 논의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업 중심의 행정보다 중장기적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전문화, 연구기능 강화, 지역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의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회의자료, 예산, 정책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시민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함.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패나 비효율을 예방하는 데 기여함. 우리 지방의회도 의정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 중계나 정책토론회 등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바르셀로나 시의회 연수단 단체사진</td><td>의회 내부 모습</td></tr>
<tr><td></td><td></td></tr>
<tr><td>바르셀로나 시의회 정면</td><td>의회 맞은편 바르셀로나 시청의 모습</td></tr>
</table>

2-3 마드리드 시의회

○ 방문일정 : ‘25. 9. 29.(월) 14:00
○ 주　　소 : C. de Montalbán, 1, Retiro, 28014 Madrid,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madrid.es/

□ 방문지 소개

○ 마드리드 시의회는 스페인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마드리드의 지방정부로, 도시 행정의 중심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기관임. 공식 명칭은 Ayuntamiento de Madrid이며, 시청사는 마드리드 중심부의 시벨레스 궁에 위치함. 이 건물은 과거 우체국 건물로 사용되다가 2007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시청사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행정 기능과 시민공간을 겸한 복합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마드리드 시의회의 기원은 중세 시기인 12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도시의 행정은 ‘콘세호 데 마드리드(Concejo de Madrid)’라 불리는 지방자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주민 대표들이 모여 세금, 도시 방어, 상업 규제 등을 논의했음. 이후 1561년 펠리페 2세가 마드리드를 스페인 왕국의 수도로 정하면서 중앙권력이 집중되었고, 시의회는 국가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보조하는 형태로 발전했음.

○ 마드리드 시의회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됨. 시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

○ 현재 시의회는 총 5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당제 체계 속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활동하고 있음. 의회의 수장은 시장으로, 시의원 중 다수당의 대표 또는 연합 협약에 따라 선출됨.

○ 의회 내에는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Comisiones Permanentes)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감사위원회와 시민권익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마드리드 시의회는 도시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함.

첫째, 입법 및 정책결정 기능. 시의회는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 교통정책, 환경보호, 복지서비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함.

둘째, 예산 편성 및 재정감시 기능. 시의회는 연간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함.

셋째, 행정감독 및 집행부 견제 기능. 집행기관인 시장 및 시정부의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질의·조사·결의 등을 통해 정책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함.

넷째, 시민참여 확대 기능. 마드리드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위원회(Juntas de Distrito)와 온라인 플랫폼 Decide Madrid를 운영함. 주민은 이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 교통체계 개선, 지역 문화사업 등 다양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음.

○ 마드리드 시의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사회적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Madrid 360'이라는 도시환경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오염 저감, 전기차 보급, 녹지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고 있음.

○ 문화정책 면에서는 도시의 역사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예술과 창의 산업을 적극 지원함. 특히 시의회는 '마드리드 문화노선(Madrid Cultura Abierta)' 정책을 통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

○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동, 노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지방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시의회는 시민참여와 투명행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지방정부의 선진 모델로 평가됨. 중앙권력의 중심지이면서도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의회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디지털 기반의 시민참여 확대. 마드리드 시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Decide Madrid' 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에서 공식 검토하도록 제도화함. 이러한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시스템은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임. 우리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조례청구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참여 채널 구축과 결과 피드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투명한 행정과 책임정치의 정착. 마드리드 시의회는 회의록, 예산집행현황, 정책자료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수행함. 또한 시민권익옴부즈만 제도(Defensor del Pueblo Municipal)를 두어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함. 우리 지방의회 역시 의정활동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 마드리드 시의회는 교통, 환경, 주거, 복지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도시정책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Madrid 360’ 등 탄소감축 및 녹색도시 전략을 추진함. 이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행정 감시기관을 넘어 정책 기획과 전략수립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모범사례임. 우리 지방의회도 지역의 장기발전전략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드리드 시의회의 사례는 디지털 참여, 투명행정, 정책전문성, 포용자치의 네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지방자치 모델로서 우리 지방의회도 이러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지방자치와 책임의정의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방문 사진



마드리드 시의회 연수단 단체사진

3-1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 방문일정 : ‘25. 9. 27.(토) 11:00
○ 주　　소 : Carrer de la Diputació, 112, L'Eixample, 08015 Barcelona, 스페인
○ 홈페이지 : http://www.colegiocoreano.com/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Colegio Coreano de Barcelona)는 1991년 4월 6일 개교하여 약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의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체험, 재외동포 자녀의 정체성 함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임.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는 재스페인 한인회 및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주체를 맡고 있고,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중이며 신정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약 20명의 선생님들이 한글과 역사, 전통문화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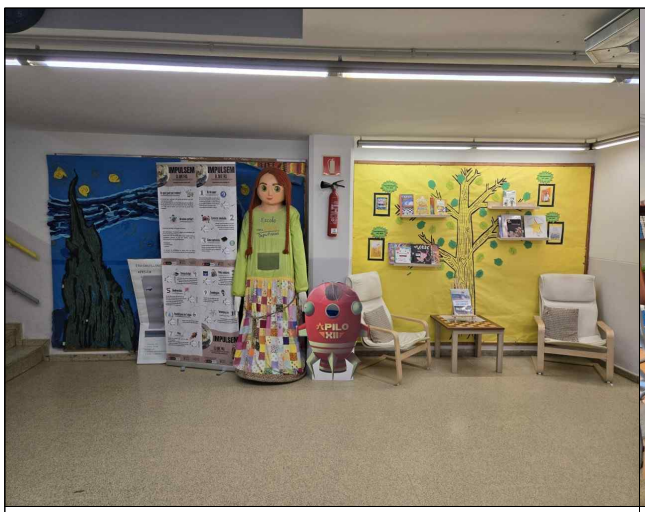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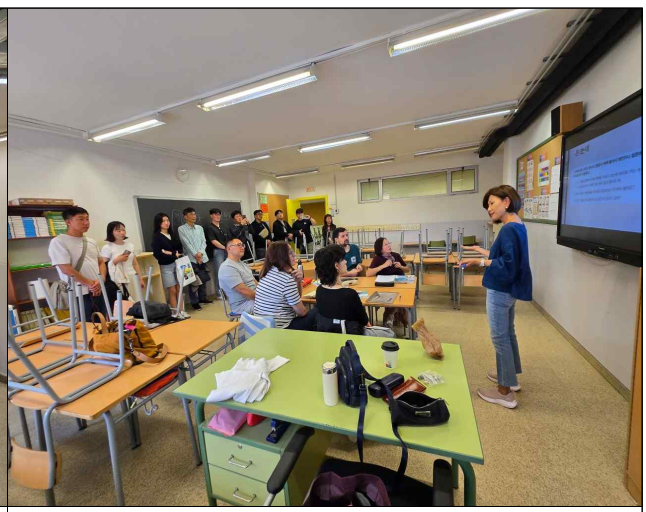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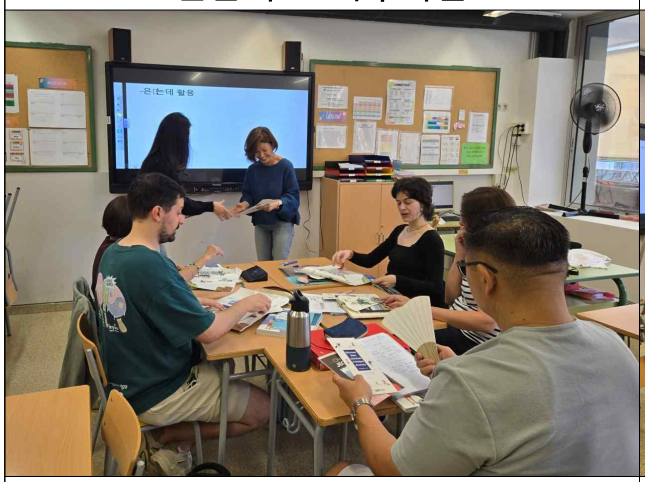
○ 바르셀로나 한글학교는 개교 초기에는 이민 1세 재외동포 자녀 중심의 한글교육을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 재외동포 자녀뿐만 아니라 현지 스페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하여 한해 학생 수가 약 12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짐.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발전에 힘입어 K-POP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열풍 등에 따른 K-문화 및 예술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바르셀로나 현지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확산되어 현지 청년들의 입학 신청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다만, 현재 정부 및 민간의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바르셀로나 지역 초등학교 건물에 주말을 이용해 임차하여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보니 교육공간이 협소해 체험행사나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바르셀로나 내의 문화기관(시청, 대학 등의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여 한글학교의 활동이 현지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는 홍보의 한계도 존재하고 있음.

- 한글 및 서예, 풍물 등 전북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바르셀로나시의 MOU를 체결하여 “전북 K-Culture Day”, “전북의 날 체험행사” 등 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정기적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글 교육외에 영화 · 전통놀이 · 음식 · 서예 · 농악 등의 체험교과 운영, 현지문화를 접목시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재외공관 및 기관을 연계하여 현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적극 추진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 및 온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문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한글학교 내부사진</td><td>한글학교 수업 참관</td></tr>
<tr><td></td><td></td></tr>
<tr><td>한글학교 수업 참관</td><td>학글학교 학생들과 단체사진</td></tr>
</table>

3-2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 방문일정 : ‘25. 9. 29.(월) 15:00
○ 주　　소 : Paseo de la Castellana 15, 28046, Madrid, 스페인
○ 홈페이지 : https://spain.korean-culture.org/es

○ 한국과 스페인은 1950년 양국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여 정치,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음.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은 스페인 및 남부유럽 지역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양국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1년 마드리드 중심부인 카스텔라나 거리(콜론 광장 인근)에 개원한 대한민국 공식 문화 홍보 기관이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관(KOCIS)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원에서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어 강좌뿐만 아니라 서예, 한지공예, 전통악기 체험, 바둑, K-POP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강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시,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음.

○ 특히 그 어느때보다 K-POP과 K-문화의 전 세계적인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원과 같은 재외공관 및 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한국문화원은 마드리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르셀로나 등 다른 지역 접근성 제한으로 현지인 참여율이 저조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이 한국전통 중심으로 편중되어 현지 문화와 연계한 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며 한정된 예산 및 상근 직원수 제한으로 행사 운영 및 홍보가 미흡함.

- 한국문화원은 현지에서 전북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전통서예, 민속춤 등 전북 고유의 전통예술과 현지 문화를 접목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를 개발 운영하여 스페인 현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스페인의 미술관, 공연장, 예술학교 등과 협력하여 전북 출신 예술가의 작품 전시, 합동 워크숍, 교류 공연 등을 개최함으로써 상호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며, 한국문화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전북의 전통예술 영상, 온라인 전시, 실시간 공연 중계 등을 제공하면,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지역 전역에 전북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피드백, 현지 관심도 조사, 홍보 효과 분석 등 을 기반으로 맞춤형 전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방문 사진

<table>
<tr><td>
</td><td></td></tr>
<tr><td>한국문화원 한글 전시전</td><td>한국문화원 직원 면담</td></tr>
<tr><td></td><td></td></tr>
<tr><td>한국문화원 소개 사진</td><td>문화원 방문 단체사진</td></tr>
</table>

4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

○ 방문일정 : ‘25. 9. 24. ~ 9. 28.
○ 주　　소
- Pl. de Carles Buïgas, Sants-Montjuïc, 08038 Barcelona Spain
- Playa de la Barceloneta
- Plaça de Catalunya, L'Eixample, 08002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s://www.barcelona.cat/lamerce/es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는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로, 매년 9월 24일 ‘성모 마르세의 날’을 기념해 약 5일 동안 개최함.

○ 축제의 유래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염병과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던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자비의 성모(La Mercè)’에게 구원을 기도하자, 성모가 도시를 보호해주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시민들은 성모 마르세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추앙하고, 매년 9월 24일을 감사의 날로 지정하여 종교적 행사를 열고 있음.

○ 1871년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이 행사를 공식 축제로 지정하면서 ‘시민이 도시를 축하하는 문화행사’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 관광객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도시축제로 성장하였음.

라 마르세는 도시의 신화를 시민문화로 승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전북 역시 도내 각 시·군의 전설, 인물, 자연자원,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단순한 관광 행사에서 벗어나 ‘도민이 자신의 도시를 축하하는 날’로 제도화한다면 지역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라 마르세 축제는 예술, 전통, 시민참여가 융합된 종합문화행사로 구성되어 있음. 축제기간 동안 바르셀로나 전역이 공연무대로 활용되며, 광장·해변·공원·골목길 등 도시공간 전체가 예술의 장으로 변모함.

○ 대표 프로그램인 '카스텔(Castell, 인간탑 쌓기)'은 협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전통행사로, 수십 명의 시민이 힘을 모아 8~10단 높이의 인간탑을 세움. 이는 카탈루냐 지역의 연대정신을 표현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코레포크(Correfoc, 불의 행진)'은 악마와 용으로 분장한 시민들이 불꽃을 들고 행진하며 악을 쫓는 상징적 퍼포먼스를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역동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줌. '기안츠 퍼레이드(Gegants i Capgrossos)'에서는 거대한 인형들이 거리 곳곳을 행진하며 시민들과 어우러지고, 어린이와 가족단위 참여가 활발함.

○ 이 외에도 해변에서 열리는 불꽃쇼 '피로테크니아(Pirotècnia)', 시청 광장과 해안공원에서 열리는 '메르세 라이브(La Mercè LIVE)' 콘서트 등 음악·무용·시각예술·전통놀이가 결합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됨. 축제기간 동안 시민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공연자, 자원봉사자, 예술가로 참여하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기능함.

◘ 라 마르세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예술행정의 모범사례임 전북도는 각 지역의 전통예술 · 청년예술가 · 시민동아리를 결합한 다층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함,

○ 라 마르세 축제의 핵심운영 철학은 "행정은 조정자, 시민은 주체"임. 축제 총괄기관은 바르셀로나 시정부 문화국(Institut de Cultura de Barcelona)으로, 예산지원·안전관리·행정협조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기획·연출·운영은 시민위원회, 예술가단체, 지역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주도함.

○ 시민위원회는 매년 축제기획단 공모를 통해 구성되며, 공연기획, 지역홍보, 환경관리, 관광유치 등 세부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있음.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제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 예산은 약 70%가 시정부 예산, 30%가 민간 후원과 시민기부로 충당되며, 기업 후원은 '시민축제 파트너십'의 형태로 사회공헌과 연결됨.

○ 이러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는 축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장으로 기능하며,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이를 도시행정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전북도 역시 축제운영에서 실질적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형식적인 추진위원회를 넘어 주민·예술가·청년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시민기획형 축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라 마르세 축제의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게스트 시티(Ciutat Convidada)' 제도임. 매년 한 개의 외국 도시를 공식 초청하여 해당 도시의 문화·예술·음악·음식 등을 축제 기간 동안 소개함. 이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되어 국제문화교류와 도시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게스트 시티로 선정된 도시는 시청광장과 주요 거리에서 전통공연, 현대예술 전시, 음식박람회 등을 열며, 시민과 직접 교류함. 서울특별시는 2018년 게스트 시티로 초청되어, 국악과 사물놀이 공연, 한복 패션쇼, K-팝 콘서트, 한식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현지 언론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음. 이 행사는 스페인 내 한국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며, 양 도시 간 문화외교 협력의 토대가 되었음.

○ 게스트 시티 프로그램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가 예술로 대화하는 문화외교 플랫폼으로 작동하는데, 초청 도시는 자국의 예술인을 파견하고, 바르셀로나는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 교류를 이어감.

◘ 향후 도내 대표축제에 '게스트 시티 주간'을 도입하여 해외자매도시나 국제협력도시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주국제영화제, 남원춘향제, 정읍구절초축제 등과 연계하여 외국 도시의 예술단체와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북의 국제문화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음.

○ 라 마르세 축제는 바르셀로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 약 200만 명이 방문하며, 숙박업·음식업·공예품·교통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됨. 2023년 기준 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3억 유로로 분석됨. 특히 축제기간 동안 약 3천 개의 단기 일자리가 창출되며, 청년층과 예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짐.

○ 또한 축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여 장기적 관광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축제 참가 시민의 만족도와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해 차기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도시경영의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축제정책 또한 문화행정을 지역경제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도내 예술인·공방·소상공인을 축제운영에 직접 참여시키고, 축제를 통한 청년창업·관광·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라 마르세 축제는 친환경·지속가능 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축제 전반에 '그린 운영원칙'을 도입하여 모든 장식물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금지함. 음식 부스에서는 로컬 푸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사용 가능한 컵 시스템을 운영함. 이동수단은 전기차·자전거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수행함. 불꽃쇼 또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화약을 사용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축제를 통해 환경정책을 시민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이 지정한 지속가능 문화도시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 전북은 생태환경과 농업이 강점이므로, 축제에 친환경운영 기준을 제도화해야 함. 재생소재, 지역농산물, 탄소중립 장식물 등을 활용하여 '전북형 그린축제'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라 마르세 축제는 사회적 약자·이주민·장애인·고령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형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공연장에는 휠체어 접근로와 전용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요 공연에는 수어 통역이 병행됨.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시스템과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또한 시민참여 앱을 통해 공연정보, 교통, 긴급안내, 안전알림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공연을 가상체험할 수 있음.

○ 시정부는 축제를 '스마트 문화행정 실험장'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축제 개선과 행정정책에 반영함. 이러한 디지털 기반 행정은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

◘ 축제정보 통합앱을 구축하여 공연일정・주차・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개선을 추진해야 함. 동시에 장애인・고령층・외국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환경을 마련하여 포용적 축제를 실현해야 함

□ 프로그램 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카스텔(Castell, 인간탑 쌓기)</td><td>코레포크(Correfoc, 불의 행진)</td></tr>
<tr><td></td><td>
</td></tr>
<tr><td>기안츠 퍼레이드(Gegants i Capgrossos)</td><td>피로테크니아(Pirotècnia)</td></tr>
</table>

Ⅴ 마무리말

○ 이번 스페인 국외연수는 문화·예술·행정·의회제도의 선진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혁신과 문화정책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계기였음.

○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연수를 통해 스페인 지방정부가 예술과 행정을 긴밀히 결합하여 시민의 삶 속에 문화를 녹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가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도시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함.

○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들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까사 바뜨요·까사 밀라·구엘 공원은 단순한 미적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은 행정 성과의 결정체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사례였으며,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40여 년간 시민의 후원과 행정의 지원이 지속되어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신뢰가 문화행정의 핵심임을 보여줌.

○ 까사 바뜨요와 까사 밀라는 유산 보존과 수익 창출을 결합한 성공적인 모델로서 디지털 미디어와 몰입형 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대 건축물·사립미술관·전통문화공간에도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문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함.

○ 몬세라트 수도원과 톨레도 대성당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이 신앙의 공간을 넘어 예술・교육・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와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음.

○ 카탈루냐 주의회・바르셀로나 시의회・마드리드 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시민참여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었고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을 넘어 공론형성과 정책조정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이러한 운영체계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지원 기능이 단순한 사무지원에서 벗어나 의원정책역량 강화 중심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함.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과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방문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스페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문화원은 K-컬처 확산의 교류거점으로 한글학교는 민간 외교의 교육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제문화교류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자매도시와의 문화・교육・청년교류사업을 확대해 지역의 정체성을 세계 속에 확산시켜야 함을 느꼈음.

○ 라 마르세(La Mercè) 축제 참여는 이번 연수 중 가장 인상 깊은 현장이었으며 축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 전체를 무대로 운영되고 있었음. 프로그램은 전통과 현대 예술이 결합된 다층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행정은 조정자 역할에 집중하며 시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었음. 이러한 시민참여형 운영방식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축제가 행정주도형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치형 축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줌.

○ 라 마르세 축제의 친환경 운영체계 또한 주목할 만하였으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무대장식과 탄소중립 시스템이 도시의 환경정책과 연계되어 있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농업 기반을 활용해 탄소 저감형 축제를 제도화한다면 지속가능한 문화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스페인의 문화유산 관리와 축제운영 지방의회 제도와 국제교류는 모두 '참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또한 이러한 철학을 내재화하여 문화와 행정을 결합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도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체험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문화행정을 확립해야 함.

○ 이번 연수를 통해 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스페인의 사례처럼 문화행정은 예술을 통해 감동을 주고 참여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실감함.

○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절차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혁신적 사고를 행정 전반에 접목하고자 하며 해외의 우수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역사와 지역성을 반영한 창의적 행정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번 국외연수는 공직자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감각과 지역적 책임을 동시에 일깨워준 값진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이 세계와 연결되고 도민 속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린 자세와 실천적 행정으로 임할 것임.